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 분석*

김미라¹⁾ 신유림²⁾

요약

본 연구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놀이행동을 군집화하고,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3, 4세 유아 322명이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행동은 성별에 따라 각각 네 개의 유형으로 군집화 되었다. 둘째, 남녀 유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었다. 유아들은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함께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놀이에 차이가 있었다. 다양한 놀이에 고르게 참여하는 유아들은 적응 수준이 높았으며, 놀이를 적게 하는 유아들은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았다. 혼자놀이와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유아들은 사회적 놀이 참여정도에 따라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사회적 놀이의 긍정적인 요소가 다른 놀이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시켜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기 놀이의 발달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 교육현장에서 유아의 놀이행동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주제어: 놀이행동군집,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문제행동

I. 서론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입학하게 되면서 가족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처음으로 적응하게 된다. 유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를 잘 수용하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석사

2)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고 교사의 기대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며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해 나간다. 반면에 일부의 유아들은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의 하루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놀이를 하면서 보내는데 참여하는 다양한 놀이행동을 통해서 유아의 심리사회적 적응 및 문제행동에 대해 알 수 있다. 유아들은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나누기와 협동하기와 같이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Rentzou, 2017). 반면에 혼자놀이에 빈번히 참여하는 유아는 사회적 위축성의 정도가 높고 또래들로부터 수용되는 정도가 낮았다(Coplan, Wichmann, & Lagace-Seguín, 2001). 또한 유아기 비놀이는 행동은 사회적 불안, 우울 및 낮은 자아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성이 보고되었다(Choo, Xu, & Haron, 2012), 따라서 놀이 연구자들은 유아가 참여하는 혼자놀이, 사회적 놀이 및 거친 신체놀이와 같은 다양한 놀이행동과 적응 및 부적응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실시해왔다.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비놀이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았고(Coplan et al., 2001), 또래와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불안의 정도가 높았으며(김민정, 2005). 놀이단절과 놀이방해 행동을 빈번히 보이는 유아들은 ADHD 성향의 정도가 높았다(이현정·신유림, 2014). 문제행동을 군집화 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유형의 문제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복합형 집단의 유아들은 놀이방해의 수준이 높았다(신혜영·최혜영, 2011).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놀이는 유아의 적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놀이행동이다.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또래와 놀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고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다름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면서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러한 유아들은 또래관계의 유능감(김기영·이진희, 2009)과 친사회성의 수준이 높고(박화윤·마지순·천은영, 2004), 유아교육기관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였다(안효진, 임연진, 2010). 친구들과 어울려 즐겁게 놀이하고 협동적이며 놀잇감을 유통성 있게 사용하는 유아들은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다(박성선·서현아, 2014).

혼자놀이에 빈번하게 참석하는 유아는 불안감과 위축성의 정도가 높았고, 놀이단절의 정도가 높은 반면에 또래상호작용의 정도는 낮았다(신은수·권미경·정현빈, 2010). 반면에 혼자놀이가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는데 박은영, 신은수·김현진(2012)에 의하면 혼자 탐색과 혼자 구성놀이는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없었다. 혼자놀이는 고유한 놀이가치가 있으며 유아들은 여러 동기

에 의해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데, 혼자놀이를 하는 유아들은 이러한 놀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해도 혼자놀이를 지속한다(엄정애, 2009). 또한 대인 지향적이기 보다 사물 지향적 성향을 보이는 유아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사물을 구성하는 혼자놀이에 빈번하게 참여하게 된다(Coplan et al., 2001).

남아들이 즐겨 참여하는 거친 신체놀이는 외현적 특성이 공격적 행동과 유사하여 유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고여훈, 엄정애, 2010). 유아 교사들은 거친 신체놀이를 실외에서는 비교적 허용하는 것과는 달리 실내에서는 제한하는 태도를 보인다(Stoli & Sanderselter, 2015).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다르게 거친 신체놀이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유아는 거친 신체놀이에 참여하며 타인이 자신과 같이 취약하다는 인식을 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강영식·마지순·안라리, 2013). 거친 신체놀이에 빈번히 참여하는 유아는 주도적이고(노은아, 문병한, 2012), 또래관계에서 인기가 높았다(김영아, 2007).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사회적 놀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적인 반면에 혼자놀이와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이므로 이러한 놀이에 대한 발달적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놀이 선행연구들은 분석단위를 변인에 기초한 변인 지향적 접근법(variable-oriented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놀이행동을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므로 놀이행동별 참여하는 빈도의 차이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며, 비놀이 행동, 혼자놀이, 사회적 놀이 및 거친 신체놀이와 같은 다양한 놀이가 조합하여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놀이를 관찰해보면 유아들은 한 가지 놀이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 다양한 유형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므로 한 가지 특정 놀이행동이 유아의 전형적인 놀이 특성으로 단순화될 수 없다. 유아가 특정 놀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함께 나타나는 놀이행동은 무엇이며 어떤 놀이에 가장 참여도가 높거나 낮은지에 기초하여 놀이를 이해한다면 놀이에 참여하는 양상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놀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적용하여 유사한 놀이참여 양상을 보이는 동질적인 하위 군집을 선별하고 이러한 군집별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군집분석을 적용한 놀이 선행연구를 보면 또래놀이행동을 기준으로 방해, 단절형과 상호작용 군집으로 분석하여 유아의 기질, 교사-유아관계 및 학급 규모를 비교한 연구(이현정·신유림, 2014)가 있으며, 유아의 사회적 놀이 군집을 놀이를 적게 하는 형,

집단놀이형, 병행/집단놀이형, 병행놀이형, 단독놀이형으로 구분하고 공격성, 비사교성, 배척성, 과잉활동-주의산만성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민성혜, 2006) 등 소수의 연구들만이 보고되었다.

유아의 성은 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므로 성별에 따라 놀이행동과 놀이 선호에 차이가 있다. 18개월부터 영아들은 자신의 성에 적합한 놀이감과 놀이 활동을 선택하기 시작하여 3세가 되면 성 전형적인 놀이행동은 거의 완성된다(Golombok et al., 2008). 여아들은 돌보기와 양육을 주제로 한 상상놀이에 참여하는 반면에 남아들은 영웅놀이, 싸움놀이, 쫓기게임 및 구출놀이(rescue play)와 관련된 놀이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았다(Stoli & Sanderselter, 2015)). 활동수준이 높은 남아들은 거친 신체놀이에 즐겨 참여하며(고여훈·엄정애, 2009), 동성의 또래와 거친 신체놀이에 빈번히 참여하는 남아들은 인기가 높았다(Lindsey, 2014). 여아들은 놀이 상대방과의 협동을 중요시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놀이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비교해보면 여아들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에 남아들은 놀이방해와 놀이 단절의 정도가 여아보다 더 높았다(김윤희, 2010). 이러한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의 차이에 근거해볼 때, 유사한 놀이참여 양상을 보이는 군집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른 놀이의 발달 경향을 보면 언어 및 사회적 미성숙한 영아들은 혼자놀이와 병행놀이에 참여하며 3, 4세가 되면 혼자놀이에서 협동놀로 변화되면서 다양한 놀이행동이 관찰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다양한 놀이행동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놀이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3, 4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별에 따라 놀이행동 군집이 어떻게 분류되는 비교해보고 이러한 군집에 따른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놀이행동은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군집화 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유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적응 및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총 다섯 곳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세 유아 322명이다. 유아의 성별을 보면 남아가 150명(46.6%) 여아가 172명(53.4%)이었으며, 연령은 만 3세가 195명(60.6%), 만 4세가 127명(39.4%)이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는 총 16명이며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12명(74.2%), 30대가 3명(19.3%), 40대가 1명(6.5%)이었고, 경력은 3~4년이 7명(42.9%), 5~8년이 7명(43.8%), 9년 이상이 2명(13.4%)이었다. 교사의 학력은 전문대 졸업 8명(49.4%), 4년대 졸업 7명(44.1%), 대학원 졸업 1명(6.5%)이었다.

2. 연구도구

가. 유아의 놀이행동

유아의 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Coplan과 Rubin(1998)이 개발한 유아 놀이행동 척도(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를 번안·수정한 조은옥(200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비놀이 행동(4문항), 혼자-정적놀이(4문항), 혼자-동적놀이(2문항), 사회적 놀이(6문항), 거친 신체놀이(2문항)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가 놀이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였으며, 2-36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놀이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α 는 비놀이 행동 .74, 혼자-정적놀이 .66, 혼자-동적놀이 .80, 사회적 놀이 .88, 거친 신체놀이 .82였다.

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Jewsuwan, Luster와 Kostelnik(1993)가 개발하고 김난영, 신유림(2001)이 번안한 유아적응설문지(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교사의 관찰에 기초하여 유아의 적응을 측정하며 친사회성(5문항), 또래유능감(6문항),

자아 강도(6문항), 유치원 일과에 대한 적응(7문항)의 네 가지 하위요인의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24-96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a*는 친사회성 .83, 또래 유능감 .86, 자아 강도 .86, 유치원 일과의 적응 .89였다.

다.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errell(1996)가 개발하고 이진숙(2001)이 번안한 유아행동척도(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과잉행동(8문항), 공격성(8문항), 사회적 위축(7문항), 불안(8문항) 등 31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척도로 평정하였으며, 31-124점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a*는 과잉행동 .90, 공격성 .86, 사회적 위축 .77, 불안 .78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될 질문지의 적절성과 응답방식의 문제점 및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세 유아 5명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만 3, 4세 유아 3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유아교육기관장 및 교사들과 대면하여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323부의 질문지를 모두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질문지 중 질문에 충실하지 않은 1부를 제외하고 총 322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추출한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적응과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ANOVA)과 *Scheffe'*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놀이행동 군집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행동을 추출하기 위해 설명변인으로 사용된 다섯 개의 하위요인을 변인 간 비교가 수월하도록 z점수로 변환하고 K-평균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군집의 수를 2개 이상으로 지정하고 새롭게 생성된 군집 결과들을 모두 검토하여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놀이행동은 성별 간 구분된 군집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아와 여아 각각 4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였다.

가.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

남아의 군집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남아의 군집별 놀이특성을 살펴보면, 군집1은 비놀이 행동과 혼자-동적놀이의 수준이 평균이하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혼자-정적놀이와 사회적 놀이, 거친-신체놀이의 수준은 평균이상의 점수를 나타내 ‘균형적 놀이집단’(n=48)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는 다른 집단에 비해 거친 신체놀이의 사회적 놀이의 점수는 낮게 나타났으나 비놀이 행동과 혼자-정적놀이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에는 취약하나 비사회적인 놀이특성은 강하게 가지고 있어 이 집단을 ‘비사회적 놀이 선호 집단’(n=26)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3은 다섯 가지 놀이행동 중 거친 신체놀이의 점수가 가장 높고 사회적 놀이의 점수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를 선호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비놀이 행동과 혼자놀이의 점수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이 집단을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n=39)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4는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거친 신체놀이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놀이 행동의 점수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놀이의 점수는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 이 집단을 ‘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n=37)이라고 명명하였다.

남아의 놀이행동 군은 군집2를 제외하고 모두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군집1은 거친 신체놀이만큼 혼자-정적놀이와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였고, 군집3은 거친 신체놀이에 비해 혼자놀이의 수준은 낮지만 사회적 놀이에는 적절히 참여하는 집단이었다. 또한 군집4는 거친 신체놀이만큼 비놀이 행동을 보였고 사회적 놀이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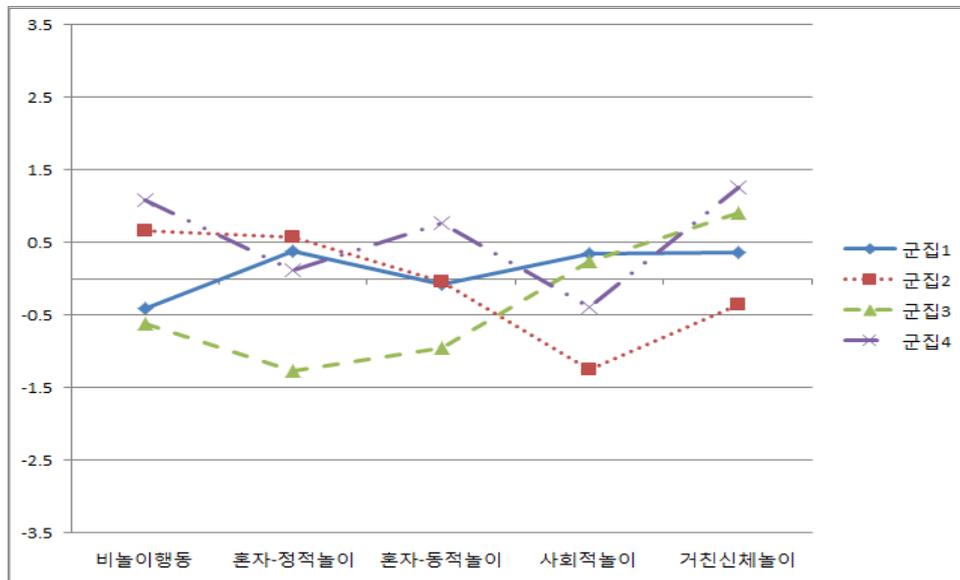
취약하였다. 한편 거친 신체놀이에 가장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군집2는 사회적 놀이 또한 적게 나타났다.

〈표 1〉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N=150)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8)	군집2 (n=26)	군집3 (n=39)	군집4 (n=37)		
비놀이 행동		-0.42(.48)a	0.66(.86)b	-0.62(.58)a	1.08(.83)b	55.62***	1,3<2,4
혼자 정적놀이		0.38(.67)b	0.57(.67)b	-1.27(.77)a	0.11(.92)b	43.92***	3<1,2,4
혼자 동적놀이		-0.08(.83)b	-0.04(.70)b	-0.95(.67)a	0.77(.56)c	37.38***	3<1,2<4
사회적 놀이		0.34(.65)c	-1.26(.83)a	0.24(.59)c	-0.39(.73)b	36.52***	2<4<1,3
거친 신체놀이		0.36(.80)b	-0.36(.56)a	0.90(.77)c	1.25(.60)c	30.27***	2<1<3,4

***p < .001



[그림 1]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표준화된 점수

나.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

여아의 군집 타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거친 신체놀이의 경우 네 개의 집단 모두 평균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집단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 거친 신체놀이를 제외한 네 개의 하위요인(비놀이 행동, 혼자-정적놀이, 혼자-동적놀이, 사회적 놀이)으로 군집 명을 추출하였다.

<표 2>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대한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N=172)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6)	군집2 (n=3)	군집3 (n=58)	군집4 (n=65)		
비놀이 행동		-.42(.58)a	02.39(.69)b	0.79(.91)b	-.71(.54)a	063.78***	4<1<2,3
혼자 정적놀이		0.59(.88)b	0-.38(.80)a	0.57(.65)b	-.71(.67)a	041.97***	2,4<1,3
혼자 동적놀이		0.73(.59)c	-1.74(.87)a	0.73(.71)c	-.88(.68)b	084.28***	2<4<1,3
사회적 놀이		0.84(.53)c	-3.07(.65)a	-.84(.69)b	0.63(.66)c	101.50***	2<3<1,4
거친 신체놀이		-.19(.90)	0-.84(.61)	-.63(.76)	-.63(.64)	003.90**	-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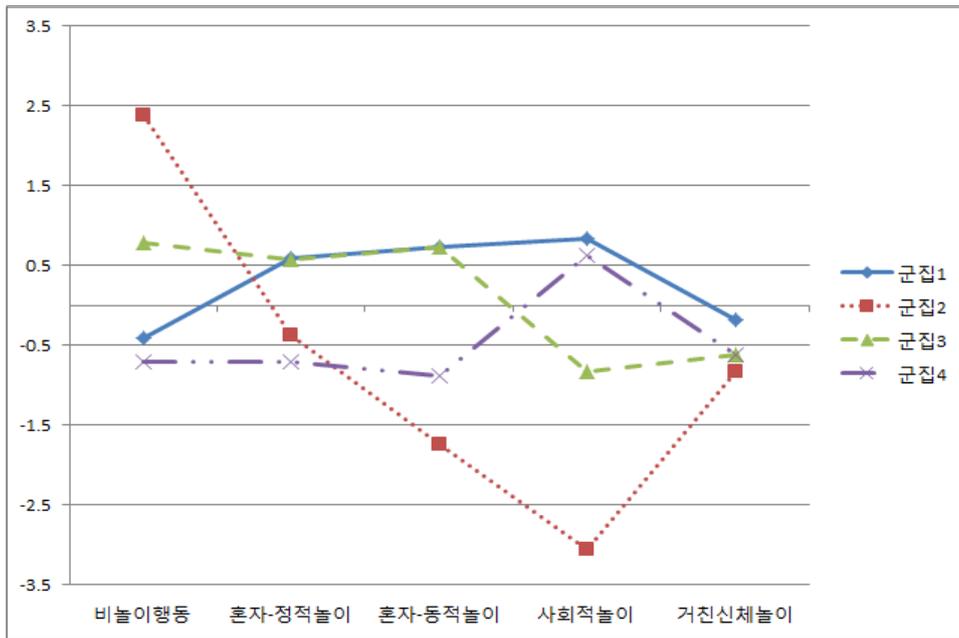
여아의 군집별 놀이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집1은 혼자-정적놀이와 혼자-동적놀이, 사회적 놀이가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놀이 행동과 거친 신체놀이는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나 '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n=46)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2는 사회적 놀이의 z점수가 -3점 이하로 낮게 나타난 점, 비놀이 행동의 z점수가 2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놀이 비참여 집단'(n=3)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3은 사회적 놀이의 점수는 평균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나 혼자놀이와 비놀이 행동의 점수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n=58)이라고 명명하였다. 여아의 군집2와 군집3은 비놀이 행동을 선호하고 사회적 놀이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와 수준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되며 군집2는 혼자놀이에 취약하고 군집3은 혼자놀이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군집4는 사회적 놀이의 점수가 다른 놀이행동의 점수보다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

다. 반면 비놀이 행동과 혼자-정적놀이, 혼자-동적놀이, 거친 신체놀이가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n=65)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군집1과 군집4 모두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지만 군집1은 사회적 놀이만큼 혼자놀이를 선호하였고 군집4는 사회적 놀이를 제외한 모든 놀이에 취약하였다.



[그림 2]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표준화된 점수

<표 3> 남녀 유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빈도와 백분율

성별	유아의 놀이행동 군 명칭	N	%	
남아	군집1	균형적 놀이집단	48	32.0
	군집2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26	17.3
	군집3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	39	26.0
	군집4	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	37	24.7
	전 체		150	100.0
여아	군집1	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46	26.7
	군집2	놀이 비참여 집단	3	01.7
	군집3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58	33.7
	군집4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65	37.8
	전 체		172	100.0

2. 성별에 따른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의 차이

가.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을 살펴보면, 친사회성의 경우 군집1(균형적 놀이집단)이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유능감의 경우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가 군집2(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아 강도와 유치원 일과에서의 적응 경우 군집1(균형적 놀이집단)과 군집3(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이 군집2(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와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적응 간 차이

(N=150)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8)	군집2 (n=26)	군집3 (n=39)	군집4 (n=37)		
친사회성		3.28(.45)c	2.85(.56)ab	3.10(.49)bc	2.70(.49)a	10.71***	4<1
또래유능감		2.70(.29)bc	2.40(.26)a	2.54(.21)ab	2.86(.28)c	18.14***	2<4
자아 강도		3.20(.52)b	2.58(.69)a	3.21(.50)b	2.75(.59)a	11.04***	2,4<1,3
유치원 일과의 적응		3.47(.46)c	2.99(.49)ab	3.26(.55)bc	2.88(.44)a	12.14***	2,4<1,3
적응 전체		3.06(.24)c	2.66(.31)b	2.90(.27)a	2.83(.27)bc	12.87***	2<1

*** $p < .001$

<표 5>에 의하면 문제행동에서 과잉행동과 공격성의 경우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가 군집1(균형적 놀이집단)과 군집2(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군집3(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과 불안의 경우 군집2(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와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가 군집1(균형적 놀이집단)과 군집3(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남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문제행동 간 차이

(N=150)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8)	군집2 (n=26)	군집3 (n=39)	군집4 (n=37)		
과잉행동		1.57(.54)a	1.88(.64)a	1.79(.64)a	2.31(.72)b	9.88***	1,2,3<4
공격성		1.39(.47)a	1.53(.49)a	1.54(.52)a	1.94(.61)b	8.14***	1,2,3<4
사회적 위축		1.32(.35)a	1.82(.53)b	1.36(.34)a	1.68(.47)b	12.11***	1,3<2,4
불안		1.46(.44)a	1.86(.49)b	1.48(.37)a	1.96(.48)b	13.07***	1,3<2,4

*** $p < .001$

나.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적응과 문제행동의 차이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을 살펴보면, 친사회성의 경우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가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래유능감의 경우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이 가장 높고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 강도의 경우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이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일과에서의 적응의 경우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3(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가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적응 간 차이

(N=172)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6)	군집2 (n=3)	군집3 (n=58)	군집4 (n=65)		
친사회성		3.41(.47)b	2.67(.12)a	2.96(.51)ab	3.47(.49)b	14.22***	2<1,4
또래유능감		2.86(.31)c	2.06(.38)a	2.60(.34)bc	2.43(.26)b	21.31***	2<4<1
자아 강도		3.32(.56)c	2.11(1.06)a	2.60(.57)ab	3.25(.52)bc	21.56***	2<1
유치원 일과의 적응		3.57(.39)b	2.38(.16)a	3.09(.44)b	3.58(.40)b	12.14***	2<1,3,4
적응 전체		3.18(.22)c	2.23(.41)a	2.77(.30)b	2.97(.23)bc	23.95***	2<3<1

*** $p < .001$

<표 7>에 의하면 문제행동에서 과잉행동의 경우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가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3(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와 군집3(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이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의 경우 군집3(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이 군집1(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과 군집4(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보다는 높게, 군집2(놀이 비참여 집단)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7〉 여아의 놀이행동 군집별 문제행동 간 차이

(N=172)

유형	요인	M(SD)				F	Scheffe'
		군집1 (n=46)	군집2 (n=3)	군집3 (n=58)	군집4 (n=65)		
과잉행동		1.42(.43)a	2.04(.29)b	1.49(.49)a	1.30(.42)a	3.93*	1,3,4<2
공격성		1.30(.36)	1.63(1.08)	1.23(.28)	1.22(.40)	1.52	-
사회적 위축		1.24(.24)a	2.29(.25)b	1.66(.47)a	1.27(.32)a	22.27**	1,4<2,3
불안		1.65(.47)a	2.46(.07)b	1.93(.57)ab	1.58(.50)a	6.87**	1,4<3<2

* $p < .05$,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놀이행동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분포형태에 근거하여 유아의 놀이행동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군집화 되는지 알아보고 형성된 놀이행동 군집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적응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이상의 놀이행동 하위요인을 선호 및 비선호된 특성으로 놀이행동 군집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놀이행동 군은 성별에 따라 구분된 놀이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거친 신체놀이의 경우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아의 놀이행동 군은 네 집단 모두 거친 신체놀이의 점수가 평균 이하로 나타나 거친 신체놀이의 참여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지만, 남아의 놀이행동 군은 사회적 놀이에 취약한 군집2(비사회적 놀이집단)를 제외하고는 모두 거친 신체놀이의 점수가 평균 이상을 보였으며 특히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 집단)의 경우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많은 연구를 통해 거친 신체놀이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놀이임이 확인되었다(고여훈·엄정애, 2010; Pellegrini, 1988).

그러나 놀이행동을 군집화 하여 다른 놀이행동들과 조직화된 집단을 형성했을 경우에도 거친 신체놀이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를 통해 남아들은 혼자놀이 또는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더라도 신체를 이용한 거친 놀이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아들은 혼자놀이 또는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더라도 거친 신체놀이의 참여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양한 놀이에 고르게 참여하는 유아는 적응 수준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적응력 있고 적은 문제행동을 보인 집단은 군집1의 남아와 여아들이며 이들은 다양한 놀이에 균형 있게 참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집단의 유아들은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남아의 군집3, 여아의 군집4)의 유아들보다 적응전체를 비교했을 때 더 적응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사회적 놀이만 선호하는 집단보다 사회적 놀이와 혼자놀이를 모두 선호하는 집단의 적응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유아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율성이 발달되어 유아교육기관에서 더욱 적응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놀이는 유아의 기질 및 동기의 영향으로 선호될 수 있으며 개인적 특성으로 혼자놀이를 선호하는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해도 이러한 놀이를 지속할 수 있다(엄정애, 2009). 최근 연구에서는 혼자놀이가 유아의 주의집중 시간, 과제 지속성 및 정서능력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Choo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비놀이 행동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집단(남아의 군집2 비사회적 놀이선호집단; 군집4 사회적 놀이선호집단, 여아의 군집2 놀이 비참여집단, 군집3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에서 외현화 또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군집2에 속하는 여아들은 소수의 인원이지만 비놀이 행동의 점수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행동 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기 비놀이는 행동은 사회적 불안 및 우울 및 낮은 자아 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Choo et al., 2012), 또래관계에서 배척, 거부 및 교사와의 갈등적인 관계와도 관련성이 보고되었다(Rubin, Coplan, Bower, 2009).

본 연구결과는 비놀이 행동과 사회성은 부적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Coplan & Rubin, 1998)와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배회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 유아는 기질적으로 수줍음을 타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는 연구(김민정, 2005)를 지지

한다. 또한 놀이를 적게 하는 유아들이 또래관계에서 공격성과 과잉행동, 주의 산만성 등을 보이고 배척을 경험한다는 연구(민성혜, 2006)와 유아의 억제된 행동은 문제행동과 정적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Coplan et al., 2001)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성향의 유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적절한 놀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비놀이 행동이 더욱 심화되고 유지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남아의 분석결과를 보면, 거친 신체놀이의 효과는 유아의 사회적 놀이 참여정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지만 사회적 놀이가 취약한 집단(남아의 군집4 거친 놀이선호집단)에서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놀이도 선호하는 집단(남아의 군집 3 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에서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다. 이 군집에 속한 유아들은 거친 신체놀이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통제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강영식·마지순·안라리, 2013)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놀이는 또래와 정서적 감정을 교류하고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놀이로써 사회적 유능감과 친사회성이 요구된다. 즉 유아가 사회적 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 중에 있거나, 사회적 놀이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충분히 발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동일한 집단일지라도 사회적 놀이의 참여정도에 따라 문제행동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거친 신체놀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놀이도 선호하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높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의 거친 신체놀이 신호를 공격적인 메시지가 아닌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이고 거친 신체놀이를 통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발달이 촉진될 것이다.

남아의 군집4(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는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면서 또래유능감 또한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거친 신체놀이는 또래와 함께 큰소리로 떠들기, 레슬링, 텀블링, 점프하기, 달리기, 쫓고 도망가기, 차기, 잡아당기고 밀기, 때리기, 찌르기, 발로차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Flanders et al., 2010), 주로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유사한 성향의 남아들이 함께 참여한다. 놀이 특성 상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남아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기회가 많으므로(강인설·박희경, 2014), 또래 간 지배 위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남아로 하여금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Pellegrini & Bartini, 2000),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고 집

단 내에서 거부되지 않을 수 있다(고윤주·김영신, 2003). Lindsey(2014)의 연구에서도 동성의 또래와 거친 신체놀이에 빈번히 참여하는 남아들은 또래집단에서 인기가 높았다. 이에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지만 사회적 놀이가 취약한 남아에게 또래유능감과 문제행동이 모두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군집4의 남아들은 외현화 문제행동 뿐만이 아니라 내면화 문제행동 또한 높게 나타났다. 우울의 증상인 불행하고 슬픈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공격적인 행동을 실행하는데 우울과 공격성은 상호작용한다(Roland, 2002). 따라서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남아들의 외현적 문제행동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 심리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수행되었으므로 거친 신체놀이 성향 선호와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한 추후연구를 통하여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거친 신체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 또한 본 결과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교사평정으로 이루어졌다. 교사들은 싸움과 거친 신체놀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유아의 거친 행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거친 신체놀이를 포함한 활동적인 놀이가 일어날 때 놀이를 중단시키고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유아의 놀이에 빈번하게 개입하였다(Schafer & Smith,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거친 신체놀이를 즐겨하는 유아를 공격적이고 과잉 행동적인 유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거친 신체놀이가 과거의 공격적인 놀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지영(2007)의 연구에 따르면 거친 신체놀이를 부정적인 놀이로 간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가 거친 신체놀이에 안정적으로 참여하여 또래와의 신체접촉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여과시키는 역할(고여훈·엄정애, 2010)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놀이를 선호하는 군집에 속했던 유아들이 전반적으로 적응을 잘 했으며 문제행동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남아의 군집1 균형적 놀이집단, 군집3 비사회적 상호작용 놀이 선호집단, 여아의 군집1 혼자놀이 및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군집4 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즉 혼자놀이나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유아들이 평소 사회적 놀이에 취약할 경우 문제행동이 높게 평가되었지만(남아의 군집2 놀이 비사회적

놀이 선호 집단, 군집4 거친 신체놀이 선호집단, 여아의 군집2 놀이 비참여 집단, 군집 3 비사회적 놀이 선호집단) 혼자놀이나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유아들이 평소 사회적 놀이에 잘 참여한다면 적응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남아의 군집1, 3, 여아의 군집1, 4).

사회적 놀이는 또래와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므로 혼자놀이를 통해서 발달할 수 없는 대인관계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 Newton과 Jenvey(2011)는 놀이과정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혼자놀이나 거친 신체놀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아일지라도 또래와 원만한 사회적 놀이가 가능한 유아들은 사회적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유아교육기관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사 양성과 관련된 정책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해준다. 유아교사 양성 과정에서 유아들의 다양한 놀이행동을 전문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놀이감과 놀이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은 유아의 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유아의 사회적 놀이를 촉진시키는 환경 구성능력을 양성과정에서 유아교사에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은 교사 평정으로 이루어져 교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놀이척도는 개발자인 Coplan과 Rubin(1998)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놀이연구에서 연구자들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어져 왔다. 교사보고법과 달리 관찰법은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 대상의 수가 많은 연구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 평정과 함께 관찰법을 적용한 추후 연구를 실시한다면 두 측정방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아의 놀이는 다양한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놀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 학급 수, 교사변인, 교사-유아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 유아의 놀이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영식·마지순·안라리(2013).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와 대인문제해결력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8(5), 189-202.
- 강인설·박희경(2014). 남녀 아동의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에 또래관계, 우울 및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3), 213-228.
- 고여훈·엄정애(2010). 유아들의 거친 신체 놀이 양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31(4), 75-90.
- 고윤주·김영신(2003).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또래수용도와 상호적 친구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21.
- 김기영·이진희(2009). 유아의 단독놀이, 기질, 또래 유능성의 관계. 사회과학논총, 28(1), 243-261.
- 김난영·신유림(2001).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연세교육과학, 49, 145-161.
- 김민정(2005).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1-14.
- 김영아(2007).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윤희(2010). 유아의 성별과 인기도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놀이행동.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은아·문병환(2012). 유아의 거친 신체놀이 참여정도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과 자아탄력성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2(5), 101-119.
- 민성혜(2006). 유아의 사회적 놀이 군집별 또래유능성의 차이.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359-379.
- 박성선·서현아(2014). 유아의 놀이성 및 창의적 성격특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10(4), 119-132.
- 박은영·신은수·김현진(2012). 유아의 사회적 놀이행동과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2(4), 249-268.
- 박화윤·마지순·천은영(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4), 285-298.
- 신은수·권미경·정현빈(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 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신혜영·최혜영(2011). 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또래 놀이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4), 175-186.

- 안효진·임연진(2010). 유아의 놀이성,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과의 관계성 연구. *아동학회지*, 31(2), 53-68.
- 엄정애(2009). 영유아 놀이와 교육. 파주: 교문사,
- 이지영(2007). 남녀 유아의 거친 신체 놀이와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 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현정·신유림(2014). 유아의 도래놀이행동 군집 별 유아, 교사, 학급 변인의 차이. *유아교육연구*, 34(4), 55-73.
- 조은옥(2002). 유아의 기질에 따른 놀이성향과 놀이 행동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Choo, M. S., Xu, Y., & Haron, P. F. (2012). Subtypes of nonsocial play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Malaysian preschool children. *Social Development*, 21(2), 294-312.
- Coplan, R. J., & Rubin, K. H. (1998). Exploring and assessing non-social play in the preschool: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eschool play behavior scale. *Social Development*, 7(1), 72-91.
- Coplan, R. J., Wichmann, C., & Lagace-Seguin, D. (2001). Solitary-active play behavior: A marker variable for maladjustment in the preschool?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5(2), 164-172.
- Flanders, J. L., Simard, M., Paquette, D., Parent, S., Vitaro, F., Robert O. Pihl, R. O., & Seguin, J. R. (2010). Rough-and-Tumble Play and the Development of Physical Aggression and Emotion Regulation: A Five-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Family*, 25(4), 357-367.
- Golombok, S., Rust, J., Zervoulis, K., Croudace, T., Golding, J., & Hines, M.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ex-typed behavior in boys and girls: A longitudinal general population study of children aged 2.5 - 8 years. *Child Development*, 79(5), 1583 - 1593.
- Jewsuwan, R., Luster, T., & Kostelni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1), 33-51.
- Lindsey, E. W. (2014). Physical activity play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acceptance: Distinct between rough-and tumble and exercise play. *Journal of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5(3), 277-294.

- Merrell, K. W. (1996). Social-Emotional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Spring*, 20(2), 132-145.
- Newton, E., & Jenvey, V. (2011). Play and theory of mind: Association with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1(6), 761-773.
- Pellegrini, A. D. (1988). Elementary-School Children's Rough and Tumble Play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02-806.
- Pellegrini, A. D., & Bartini, M.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er affili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o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3), 699-725.
- Rentzou, K. (2017). Preschool children's social and nonsocial play behaviors. Measurement and correlations with children's playfulness, behaviour problem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4), 633-647.
- Roland, E. (2002). Aggression, depression, and bullying others. *Aggressive Behavior*, 28(3), 198-206.
- Rubin, K. H., Coplan, R. J., & Bow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Schafer, M., & Smith, P. K. (1996). Teachers' perception of play fighting and real fighting in primary school. *Educational Research*, 38(2), 173-181.
- Stoli, R. & Sanderselter, E. B. H. (2015). Pre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children's rough-and tumble play i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5(11,12), 1995-2009.

·논문접수 4월 6일 / 수정본 접수 5월 19일 / 게재 승인 6월 9일

·교신저자: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이메일 yoolim@catholic.ac.kr

Abstract

Differences of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s Based on Play Behavior Clusters of Preschoolers

Mira Kim and Yoolim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lusters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s. In addition, the research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s based on the play behavior clusters. The participants were 322 preschoolers aged 3 and 4. The results revealed that boys and girls were each clustered into four types which showed distinctive play characteristics. Preschoolers who participated evenly in various play behaviors revealed the high levels of adjustment and the low levels of problem behaviors. On the other hand, the preschoolers who preferred to solitary play and rough and tumble play differed in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s depending on the levels of social play. This implies social play may buffer the negative influences of solitary and rough and tumble play.

Key words: clusters of play behaviors, adjustment, problem behaviors